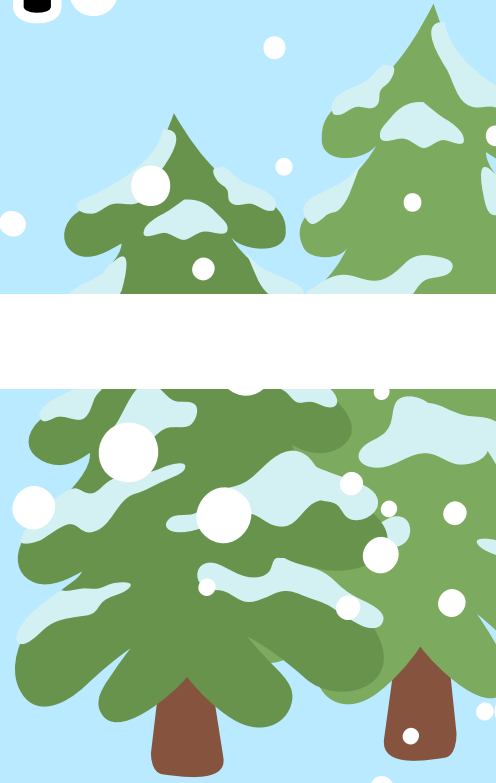


# 매일 만나

2022. 12.

에스더, 옴기



"QT 매일 만나" 는

Quiet Time 의 첫글자인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입니다.

**매일 만나**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2022

12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MEMO


## TO DO LIST



## 행복하게 하는 복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배가 고파서도, 손에 쥘 것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배가 부를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가졌는데도  
불행한 것은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배가 고파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손만 뻗으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널려 있음에도  
금지된 그것에 대한 탐욕이  
죽음에 이르는 열매에 손을 대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탐욕은 우리로 만족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지금 누리는 것조차 잃게 만듭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규정합니다(골3:5).  
탐욕을 품으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만족도 없고 복은 더욱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슈퍼 문을 보면서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달에서 보듯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은 매우 크신 분으로 보일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더욱 가까이 가는 영적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내게 매우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은 작게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기도 합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또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맛있게 먹는 밥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줍니다.

그러나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탐욕 때문에 먹은 음식은 오히려 몸에 해로울 뿐 아니라  
죽음에도 이르게 합니다.

탐욕은 다양합니다.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오르고 싶은 자리, 누리고 싶은 영광  
또 이기고 싶은 욕망과 쓸데없는 자존심 등이  
우리를 한없이 불행하게 만듭니다.

행복은 욕망을 내려놓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 *Holy Bible survey*

# 욥기

김요한 목사

### 저자와 기록 시기

욥기의 저자는 알 수 없지만, 욥기는 족장 시대를 이야기의 배경으로 두고 있다. 욥과 아브라함은 문화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가까운 관계다. 욥의 제사장 역할, 가축을 부의 척도로 삼는 것,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의 마지막 회개(42:6) 등도 족장 시대를 암시한다. 저자는 욥이 도덕법을 알고 있었다는 암시도 주지만, 욥 역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율법을 지켰다는 점을 보여주기 원했을 수 있다(창26:5). 욥에 대해 언급하는 에스겔에 근거하면(겔14:14, 20), 이 책은 포로기 이전, 에스겔이 활동하기 오래전에 (주전593-571년 무렵)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욥이라는 한 인간에 대해 말하면, 그는 비교적 젊었지만(15:10) 지혜롭고 부유했으며,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욥은 아마도 에돔 지역에 살았지만 에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증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욥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온갖 추측이 있지만, 에스겔과 야고보의 언급(겔14:14, 20; 약5:11)은 욥이 단지 우화 속의 등장 인물이 아님을 말해준다.

### 주요 주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욥의 고난은 전통적으로 이 책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분명히 의인의 고난은 이 책의 중심을 이루는 주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끝내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 많은 독자들이 이 점을 하나의 결함으로 여길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이 결작의 문학적 비범성(literary genius)을 드러내는 특징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욥의 고난은 결코 설명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시기에 아무리 단순한 대답을 주실지라도, 그 대답은 욥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말로 들릴 것이다.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 엘리후의 질책, 인간을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욥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 쟁점임을 깨닫게 한다. 고난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부차적인 주제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욥의 주제가 단일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들의 복합체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의인의 시험과 고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등에 대한 문제이며, 이 모든 것이 욥기 전체에 걸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다. 욥기의 주제는 단지 신학적 이론이 아닌 인간이 처한 현실에 관한 것이며, 이 점이 욥기를 더욱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책으로 만든다. 욥의 세계는 그 속의 문제들을 아무런 감정도 고통도 없이 논할 수 있는 가상 세계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실제 세계다.

## 기록 목적

1. 바울은 빌립보의 친구들이 그에게 보내 준 선물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4:10, 14-18)
2.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전하고 싶었고, 특히 그가 갇혀어도 복음 전도에 전혀 차질이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싶었다(1:12-26). 또한 그는 비록 그 자신도 풀려나서 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지만, 디모데를 보내서 더 많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다(2:19-24).
3.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 남아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했기 때문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2:25-30)
4. 빌립보 교회 안에 파당이 있고 분열 조짐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사도는, 그들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살고 행동하고 증언하도록 권면하고자 했다(1:27; 2:1-11; 4:2-3).
5.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 경향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들에게 이러한 것이 복음과 기본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기를 원했다(3:1-11).
6. 그는 또한 완전한 도달한다는 문제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 빠질 위험(3:12-16)과,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주의의 압력 아래 있음을(3:18-21)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바울의 글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용감하게 고난에 맞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고, 모든 일과 모든 환경에서 그들의 삶을 주께 맡기도록 격려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1:27-30; 2:12-18; 3:17-21; 4:4-9).



## 개요

- I. 서언(1:1-2:13)
  - A. 주요 등장인물 소개(1:1-5)
  - B. 욥이 받은 첫 번째 시험과 욥의 반응(1:6-22)
  - C. 욥이 받은 두 번째 시험과 욥의 반응(2:1-10)
  - D. 욥의 세 친구(2:11-13)
- II. 욥의 탄식(3:1-26)
- III. 대화(4:1-27:33)
  - A. 대화: 첫 번째 주기(4:1-14:22)
    - 1. 첫 번째 논쟁: 엘리바스(4:1-5:27)
    - 2. 엘리바스를 향한 욥의 대답(6:1-7:21)
    - 3. 두 번째 논쟁: 빌닷(8:1-22)
    - 4. 빌닷을 향한 욥의 대답(9:1-10:22)
    - 5. 세 번째 논쟁: 소발(11:1-20)
    - 6. 소발을 향한 욥의 대답(12:1-14:22)
  - B. 대화: 두 번째 주기(15:1-21:34)
    - 1. 첫 번째 논쟁: 엘리바스(15:1-35)
    - 2. 엘리바스를 향한 욥의 대답(16:1-17:16)
    - 3. 두 번째 논쟁: 빌닷(18:1-21)
    - 4. 빌닷을 향한 욥의 대답(19:1-29)
    - 5. 세 번째 논쟁: 소발(20:1-29)
    - 6. 소발을 향한 욥의 대답(21:1-34)
  - C. 대화: 세 번째 주기(22:1-27:33)
    - 1. 첫 번째 논쟁: 엘리바스(22:1-30)
    - 2. 엘리바스를 향한 욥의 대답(23:1-24:25)
    - 3. 두 번째 논쟁: 빌닷(25:1-6)
    - 4. 빌닷을 향한 욥의 대답(26:1-14)
    - 5. 세 친구를 향한 욥의 마지막 말(27:1-23)
- IV. 욥의 첫 번째 독백: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28:1-28)
- V. 욥의 두 번째 독백: 욥의 마지막 변론(29:1-31:40)
- VI. 엘리후의 발언(32:1-37:24)
  - A. 엘리후의 첫 번째 발언(32:1-33:33)
  - B. 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34:1-37)
  - C. 엘리후의 세 번째 발언(35:1-16)
  - D. 엘리후의 네 번째 발언(36:1-37:24)
- VII.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대답(38:1-42:6)
  - A.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38:1-40:2)
  - B. 욥의 첫 번째 대답(40:3-5)
  - C.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40:6-41:34)
  - D. 욥의 두 번째 대답(42:1-6)
- VIII. 후기(42:7-17)

# 01

목요일

##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 7:1-10

새찬송가 585장

- 1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 2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나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나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 3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 4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 5 아하수어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 6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 7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앎이더라
- 8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 9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 10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말씀 암송**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기 10:12)



## 본문설명

1~10절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7장은 에스더 절정에 해당합니다. 하만의 유대인 멸절 음모가 실패하고 오히려 하만이 아하수어로 왕의 진노를 사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하수어로 왕은 에스더 왕후의 이야기를 듣고, 하만에게 해명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을 즉결 처형하였습니다. 아하수어로 왕이 화를 식히려 잠시 나갔을 때, 하만이 에스더에게 애원하는 모습이 아하수어로 왕에게는 하만이 교만하여 왕의 보는 곳에서 왕후를 겁주고, 겁간하려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위기와 어려움 중에서도 왕의 사랑에 기대어 함부로 요구하지 않고 신중했던 에스더와 왕을 위기에서 구한 모르드개를 향하여 핍박하는 하만은 왕 앞에 교만하며, 그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성도를 지키십니다.



**Q**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 02

금요일

## 본토 백성이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에 8:1-17

새찬송가 391장

1 그 날 아하수어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오니  
2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3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4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 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5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6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차마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차마 보리이까 하니  
7 아하수어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하므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8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9 그 때 시완월 곧 삼월 이십삼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개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백이십칠 지방 유대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새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대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10 아하수어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부쳐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는 자들이라  
11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12 아하수어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십이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13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14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매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15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 겹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6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17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말씀 암송** 예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요한복음 4:41)



## 1~17절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8장 ~ 9장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만을 처형한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하사하였고, 에스더는 그 집을 모르드개에게 주며, 자신과의 관계를 밝혔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의 가족인 모르드개에게 하만에게 주었던 권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인을 멸하는 왕의 조서가 유효하였기에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인의 구원을 요청하고, 모르드개와 함께 유대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조서를 써서 제국에 반포하였습니다. 이 조서로 모든 관료들은 유대인들에게 협력하게 되었고, 제국 전역에서 7만 5천명에 달하는 유대인의 대적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언제 누리니까?

Blank space for writing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 03

토요일

##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에 9:1-19

새찬송가 497장

- 1 아달월 곧 열두째 달 십삼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 2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 3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 4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 5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 6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오백 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 7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 8 보라다와 아달리야와 아리다다와
- 9 바마스다와 아리새와 아리대와 왜사다
- 10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 11 그 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 12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오백 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 13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 14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 15 아달월 십사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삼백 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 16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칠만 오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 17 아달월 십삼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십사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 18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십삼일과 십사일에 모였고 십오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 19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십사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말씀 암송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신명기 11:27)



## 1~19절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유다인의 승리와 부림절 제정에 대해 나타냅니다. 모르드개의 새로운 조서 작성과 반포로 인한 유다인의 영광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지키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아하수에로 12년 12월 13일이라는 부림절의 근원과 역사적인 시간 배경을 근거로 유다인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도 결코 나약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강대한 민족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더욱이 12월 13일 하루만이 아니라 그 다음날까지 대적들을 진멸하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간청을 허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성취되어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백성들의 승리와 기쁨에 많은 이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Q** 하나님과 어떠한 모습으로 동행하고 있습니까?

# 04

주일

##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에스더 9:20-10:3

새찬송가 380장

- 20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 21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십사일과 십오일을 지키라
- 22 이 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 23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개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 24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 25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 26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 27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 28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 29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 30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백이십칠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 31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 32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 1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 2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 3 유다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말씀 암송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욘4:17)





## 20-28절 구원의 기쁨을 나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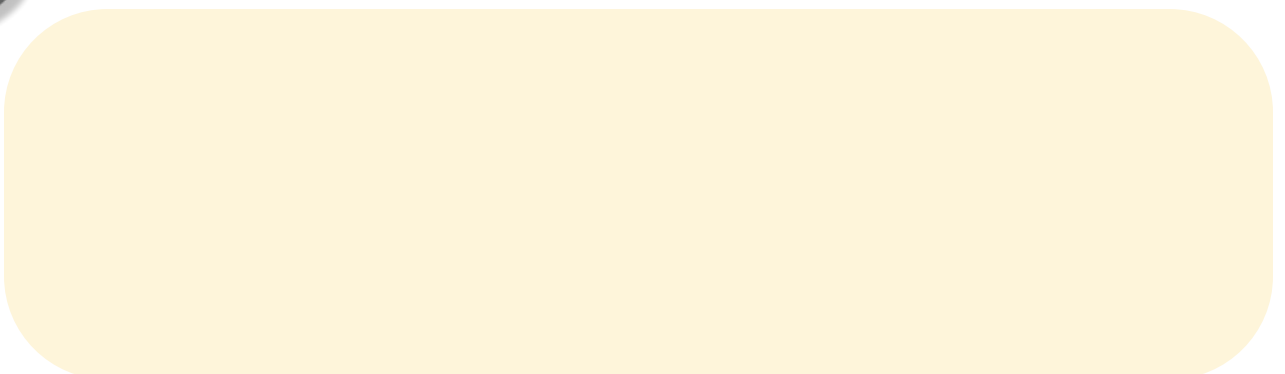
모르드개는 그의 조서에서 부림절을 지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유대인이 대적의 손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그들을 제어함으로써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히 즐거움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들은 이날에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예물을 주고, 구제했습니다. 죽을 존재들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의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독점하지 않고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죽을 자리에까지 처했던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부모, 형제, 친구, 친척, 이웃 등과 나누는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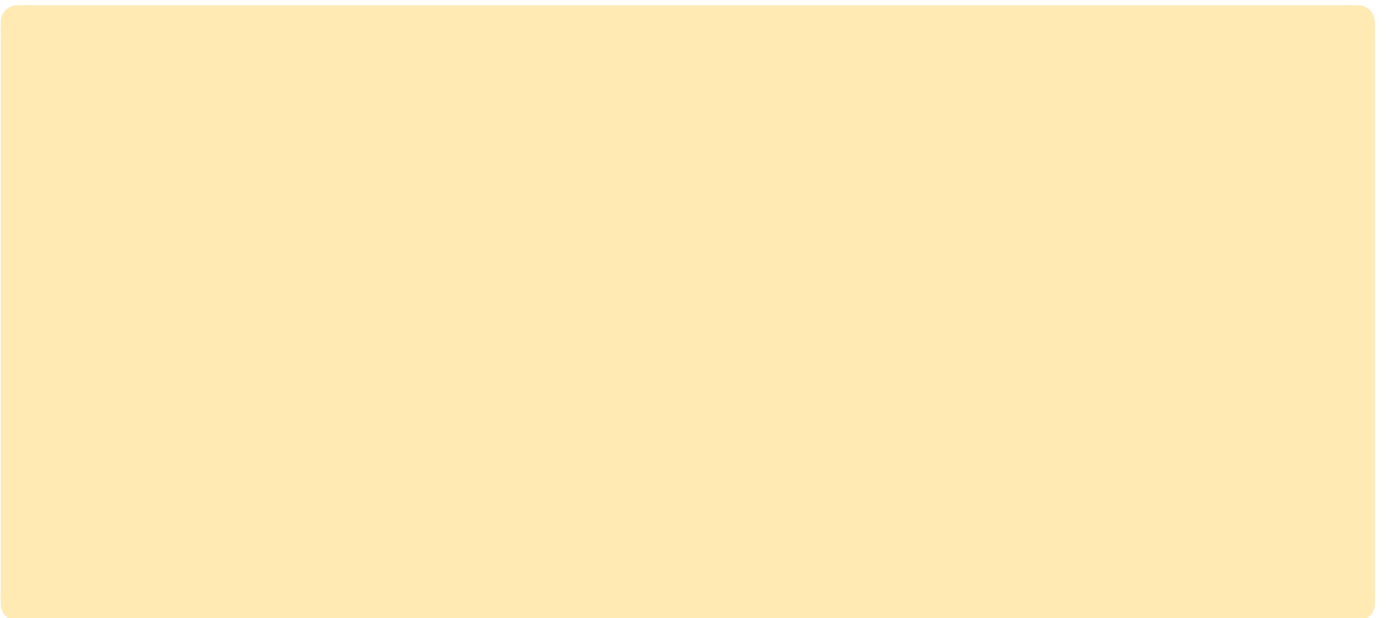
우리도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갑시다.



# 〈설교 노트〉



# 〈설교 노트〉



# 05

월요일

##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1-22

새찬송가 369장

- 1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 2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 3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요 낙타가 삼천 마리요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 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 4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 5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 6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 7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 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 9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 10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 11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 1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 13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만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 14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 15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 16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 17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 18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만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 19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 20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 21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 22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씀 암송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니  
(욥 1:22)



## 12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합시다

하나님은 옳의 신앙도 알고 마귀의 속성도 알고 있지만 시험을 허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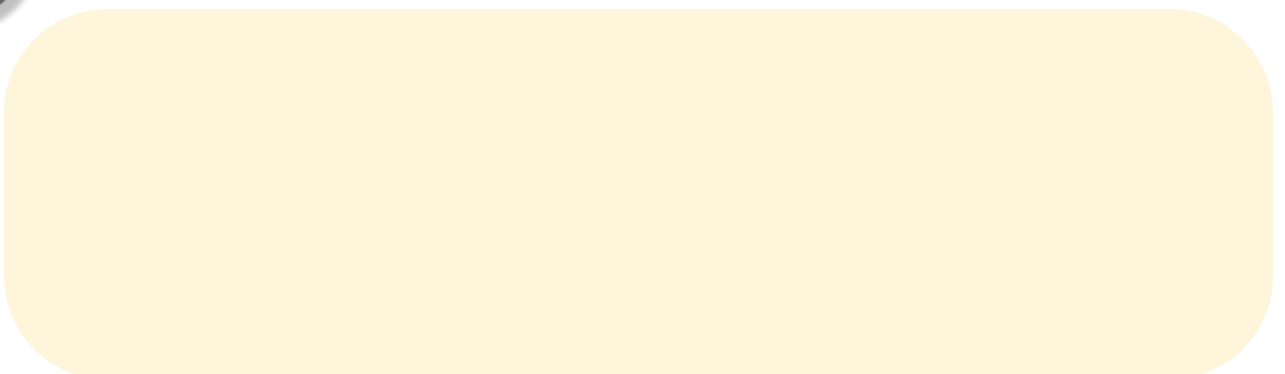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가 시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마귀는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환란 중에도 신앙고백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복이나 받고 살거라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수많은 세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어떤 시련과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다가온 시험에 놀라거나 이상하여 긴장 없습니까? 주님이 주신 목적을 깨달아 알아갑시다.



# 06

화요일

##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기 2:1-13

새찬송가 298장

- 1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 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녔나이다
- 3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 4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 5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 6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 7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 8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 9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이 욕하고 죽으라
- 10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 11 그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 12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겹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 13 밤낮 칠 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씀 암송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2:10)



## 1-7절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욥

욥은 까닭 없이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잘못이 있어서 매를 맞은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어 그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사단의 참소로 인하여 아무런 대비책도 갖지 못한 채 시험대에 올라야 했으며, 견딜 수 없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악전고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가혹한 시련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의 소유, 그의 종들, 그의 가족이 그로부터 사라져 버렸지만 그는 그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자신의 겸한 자세를 나타내 보임으로 '그의 순전'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범죄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물결 속에서 욥처럼 흔들림없이 나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Blank yellow rounded rectangle for writing the answer.

# 07

수요일

##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욥기 3:1-26

새찬송가 563장

- 1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 2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 3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 4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 5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 6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 7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 8 날을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 9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라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 10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으로구나
- 11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 12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 13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 14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 15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 16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 17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쉬을 얻으며
- 18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 19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 20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 21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 22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 23 하나님에게 둘러 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 24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 25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 26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 말씀 암송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약1:2-4)





## 1-26절 헛갈리는 인생

욥은 생일을 저주합니다(1-10).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11-12). 죽은 자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13-19). 환경을 탓합니다(20-23). 그리고 절망합니다(24-26).

욥은 자녀들의 생일이면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했고 하나님께 번제까지 드리면서 성결케 했습니다(욥1:5).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보니 자신의 생일이 그렇게 불행스럽고 저주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출생하지 아니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출생 자체를 통탄해 하고 있습니다. 자학합니다.

사실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들도 간혹 불신앙적인 말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비난을 퍼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난 후에는 곧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인내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참았던 언행을 쉽게 거리낌 없이 표현하곤 합니다.



내가 시험을 받을 때의 고통을 생각하며 어떻게 남을 돕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Blank area for writing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 08

목요일

## 생각하여 보라

욘기 4:1-21

새찬송가 463장

- 1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 2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싫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 3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 4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 5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르매 네가 힘들어 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치매 네가 놀라는구나
- 6 네 경외함이 네 자량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 7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 8 내가 보건대 악을 밟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 9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 10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 11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 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 12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 13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에
- 14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 15 그 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뻗하였느니라
- 16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 앞  
에 있었느니라 그 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 17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  
느냐
- 18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  
나니
- 19 하물며 흙 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 20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  
리라
- 21 장막 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말씀 암송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  
느냐(욘4:17)



## 1-6절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싫증을 내겠느냐

욥기 4장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비판입니다. 그는 욥이 당한 고난의 처참함을 알고 있지만 욥의 발언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3-4절에서 욥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회상시킵니다. 욥은 과거에 절망하고 고통 받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정작 본인에게 닥치니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 7-11절 생각하여 보라 죄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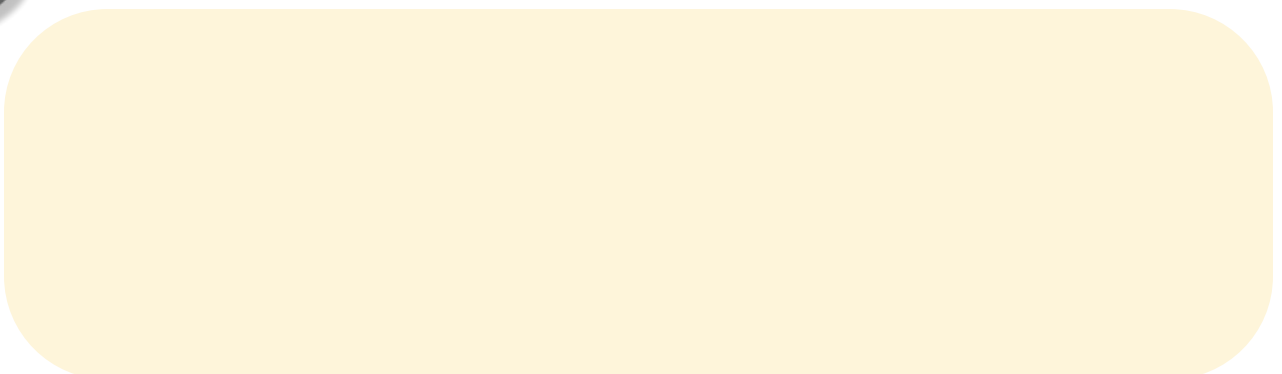
이 단락에서 엘리바스는 '행위 회복 관계의 일치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인과응보의 교리'를 강조합니다. 그의 인과응보 교리에 기초한 확고한 세계관은 7절의 질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 회복 관계의 일치성에 단선적으로 접근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 회복 관계의 이해는 모든 상황에 대한 평가를 결과에 의해서만 내리는 결과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 12-21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엘리바스는 전통과 일상적 경험뿐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가 강조하려는 것은 17절에 집약돼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창조자보다 더 정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Q** 우리는 모든 일을 결과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 09

금요일

##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욥기 5:1-27

새찬송가 283장

1.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2.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3.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4.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5. 그가 추수한 것은 주린 자가 먹되 덧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울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6.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7.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 가는 것 같으니라
8.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9.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10.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11.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12.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13.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14.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15.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16.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17.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18.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19.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20.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21. 네가 혐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22.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23.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24.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피도 앓은 것이 없을 것이며
25.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26.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 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27.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 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말씀 암송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욥 5:17)



## 1-7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엘리바스는 6,7절에서 재난과 고난이 그냥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자연의 이치를 통해 강조합니다. 재난이나 고난은 먼지와 흙에서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사람이 고난을 위해 태어난다'는 말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에 빠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성을 지닌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 8-16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놀라우며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은 자연과 인간 세계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약한자를 보호하시며 낮은 자를 높이심으로 권능과 공의를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에게 향한 말들의 의미와 효과는 이중적입니다. 욥은 이 발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강하고 교만한 자'인지 예정된 때에 높임과 구원을 경험할 '연약하고 가난한 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 17-27절 전능자의 징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는 첫 번째 발언의 마지막 단락에서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이해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교육적 조치로서 하나님의 훈육이며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크게 보면 인과응보의 교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욥의 잘못된 행동과 삶을 전제로 하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Q** 자신이나 이웃의 고난의 이유를 찾을 때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 10

토요일

##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욥기 6:1-13

새찬송가 277장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 나의 괴로움을 달아 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3.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4.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5.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6.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7.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8.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 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9.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10.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11.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12.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늦쇠겠느냐
13.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 암송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6:10)



## 1-7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욥의 발언은 첫마디부터 엘리바스의 말을 인용하며 대응합니다. 그의 괴로움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겁습니다. 4절에서 욥은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의 공격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어 그는 자신의 행동의 타당성을 주장합니다. 욥의 고난은 욥이 생각하기도 싫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고통스런 상황입니다.

## 8-13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 줄 것이며

욥은 자신의 고난 때문에 '죽음의 세계에서 평안히 쉬는 거서'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바스가 말한 것과 정반대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내용처럼 욥이 과격하게 간구하는 이유는 그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숨기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확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엘리바스의 말처럼 회개하라는 충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욥은 회개 대신 하나님께 탄식하고 질문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말하면서 죽음에 대한 갈망의 근거를 밝힙니다. 욥은 자신 안에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만 그 해결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Q**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 11

주일

## 너희는 행악자가 되지 말라

욥기 6:14-30

새찬송가 542장

14.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15.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번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 같이 지나가누나
16.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17.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18.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19. 데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20.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21.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22.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23.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24.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25.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나
26.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27.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28.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29.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30.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 14-21절 이제 너희는 아무 것도 아니로구나

욥은 다른 친구들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좋은 때에 친구이지 어려운 때에는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 친구들이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보았을 때 보이는 놀람의 반응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보는 것 즉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고난을 실재적으로 인지한다면 그들이 현실관과 이에 기초해 형성된 교리는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 22-30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욥은 22-23절에서 자신이 요구하지 않는 것을 열거함으로써 친구들에게 바라는 바를 말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정 없는 '올바른 말'이나 '훈계'는 낙심한 자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겪는 고통에 대한 이해와 위로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어떤 위로나 문제해결은 고사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태도가 변하길 바랍니다. 그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신뢰하고 그의 무죄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욥이 친구들에게 원하는 궁극적인 희망사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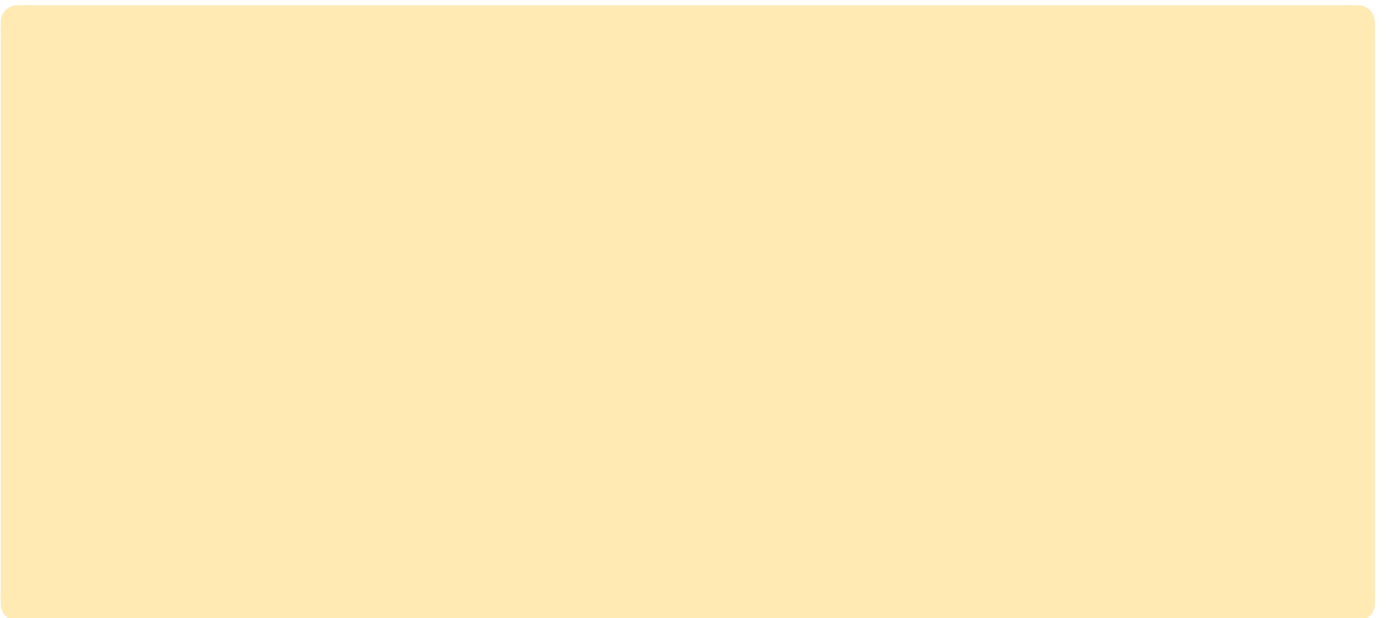
나의 생각과 말로 고난 당한 사람을 더욱 고통스럽게한 적은 언제였나요?

Blank yellow rounded rectangle for writing the answer.

# 〈설교 노트〉



# 〈설교 노트〉



# 12

월요일

## 내 생명이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욘 7:1-10

새찬송가 273장

- 1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 2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샅을 기다리나니
- 3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걱정되었구나
- 4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 5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 6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 7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 8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 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 9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 10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말씀 암송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10)



## 1절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에서 '노동'은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사는 인생에게 봉사의 때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 4절

잠은 낮 동안의 모든 피로를 풀어주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줍니다. 그러나 육체가 심히 아픈 자들은 오히려 잠을 못 이루기 때문에 더 지겹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옫은 지금 고통으로 인하여 밤이 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있습니다.

## 6절

'베틀의 북'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1. 모든 인생은 다 노동의 때가 있습니다. 제한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가치있는 일에 투자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Blank yellow rounded rectangle for writing an answer.

# 13

화요일

## 사람이 무엇이기에 마음을 두시고

욘 7:11-21

새찬송가 268장

- 11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 12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 13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 14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까
- 15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보다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 16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 17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 18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 19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 20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과녁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 21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흠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말씀 암송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시 8:4)



## 12절

욥은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욥이 극심한 고통으로 절망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1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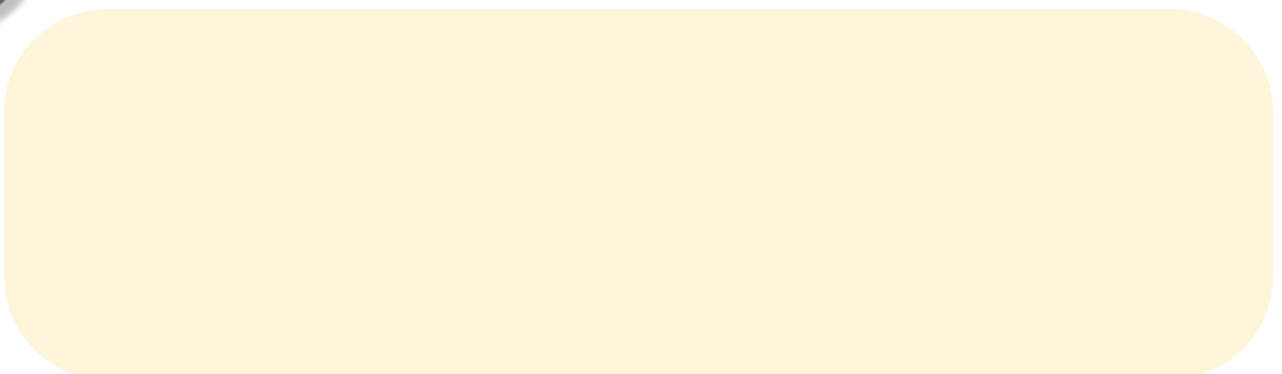
욥은 보잘 것 없는 인간을 징계하시면서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20절

욥은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고난이 심한 나머지 '이럴 바엔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 14

수요일

##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욘 8:1-10

새찬송가 471장

- 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 2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 3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 4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 5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 6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 7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 8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 9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 10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 암송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욘 8:7)





## 본문설명

빌닷은 옅의 말이 거세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지만 그 진정한 뜻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는 자는 그것을 통해서 연단 받습니다. 모든 고난은 아담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고난이 심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는지, 그때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생각해 봅시다.

# 15

목요일

##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욘 8:11-22

새찬송가 358장

- 11 왕골이 진털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 12 이런 것은 새 손이 돌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 13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 14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 15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 16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뽀으며
- 17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 18 그 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 19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흠에서 나리라
- 20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 21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 22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말씀 암송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빌 1:29)



## 본문설명

11절 왕골이나 갈대는 연못이나 늪지대에서 자라는 식물로서 물이 없으면 곧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본문에서 이 두 식물은 모두 '저속한 자'를 비유하고 있으며, '진펄'과 '물'은 세상의 '헛된 의지처'나 '헛된 소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14절 '거미줄'은 악인들이 의지하는 일시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16-19절 악인은 덩굴 식물처럼 번성할지라도 매우 급작스럽게 쇠퇴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빌닷은 현재의 욕의 고난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는 결과이므로 욕의 죄에 기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웃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고난과 자범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 16

금요일

##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욘 9:1-24

새찬송가 569장

- 1 욘이 대답하여 이르되
- 2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 3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 4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 5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 6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 7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 8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 9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 10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 11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 12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 13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 14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 15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 16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 17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 18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 19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 20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 21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 22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 23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 24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 말씀 암송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10:13)



## 본문설명

욥기8장 부터 10장은 빌닷의 1차 변론과 그에 따른 욥의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 제 8장이 빌닷의 제1차 변론을 다루고 있다면 제 9,10장은 그에 대한 욥의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하의 본문은 빌닷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는 제 9,10장 기사의 개시 부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불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물론 욥이 자기의 불의함을 인정 해서 한 말은 아니였습니다. 이는 다만 인생이 하나님 과 논쟁을 통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 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자기가 완전하게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욥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6절에서는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반을 굳건하게 붙드심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Blank space for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 17

토요일

## 주께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욘 9:25-35

새찬송가 270장

25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26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27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28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29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30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31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32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33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34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35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말씀 암송**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4:6-7)



## 본문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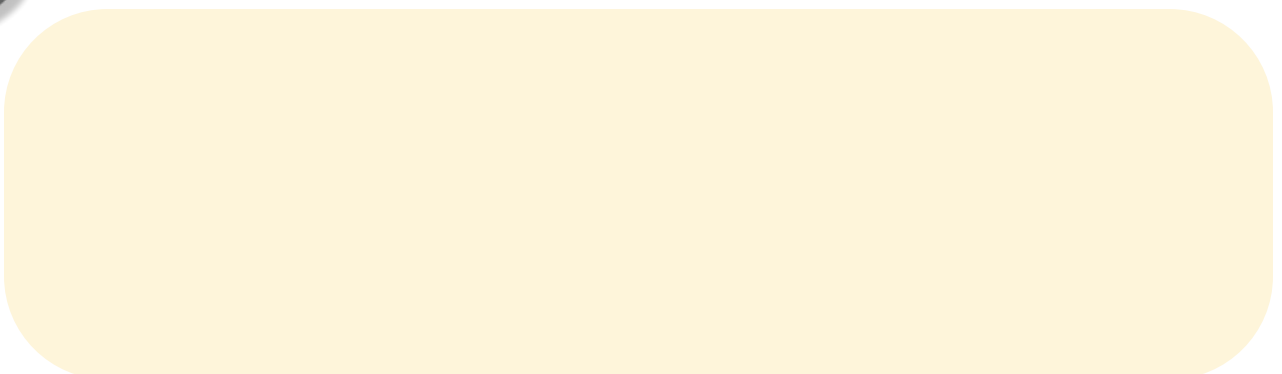
본문은 빌닷의 제일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는 제 9,10장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무차별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기록하고 있는 9:15-24에 이어 하나님을 향한 좌절감과 직설적 토로와 하나님 앞에서의 변론에 대한 의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28절에서 욥은 자신이 살아온 일생을 돌아보며 세월의 빠름을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대표적으로 빠른 것 소식을 빨리 전달하는 전령, 바다 위를 날렵하게 지나가는 빠른 새, 먹이를 덫치기 위해 쏜살같이 내려오는 독수리에 비유하여 말함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는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생각하며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닌지 두려워했습니다. 이어 29-31절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자신이 아무리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산들 그것이 무의미한 일이라는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빠르게 사라져 버리는 시간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 18

주일

##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욘 10:1-22

새찬송가 390장

- 1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 2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 3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 4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 5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 6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 7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까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 8 주의 손으로 나를 빛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 9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 10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 11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 12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 13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 14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까
- 15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 16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까
- 17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 18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 19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 20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 21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 22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말씀 암송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10)





## 본문설명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2-17절은 자기에게 까닭모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항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욥의 원통함을 참다 못하여 자기의 생각을 여과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 넣고 있습니다. 먼저 2, 3절에서 욥은 까닭모를 고난의 원인에 대해 하나님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를 죄인처럼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는 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합니다.

4-17절에서는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의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고난의 부당성을 항변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간접적으로 역설하고 있습니다. 8-13절에서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4-22절에서는 자신이 살 날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며 이제 자신을 버려두어 자신이 살 동안만이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에 욥처럼 솔직히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결국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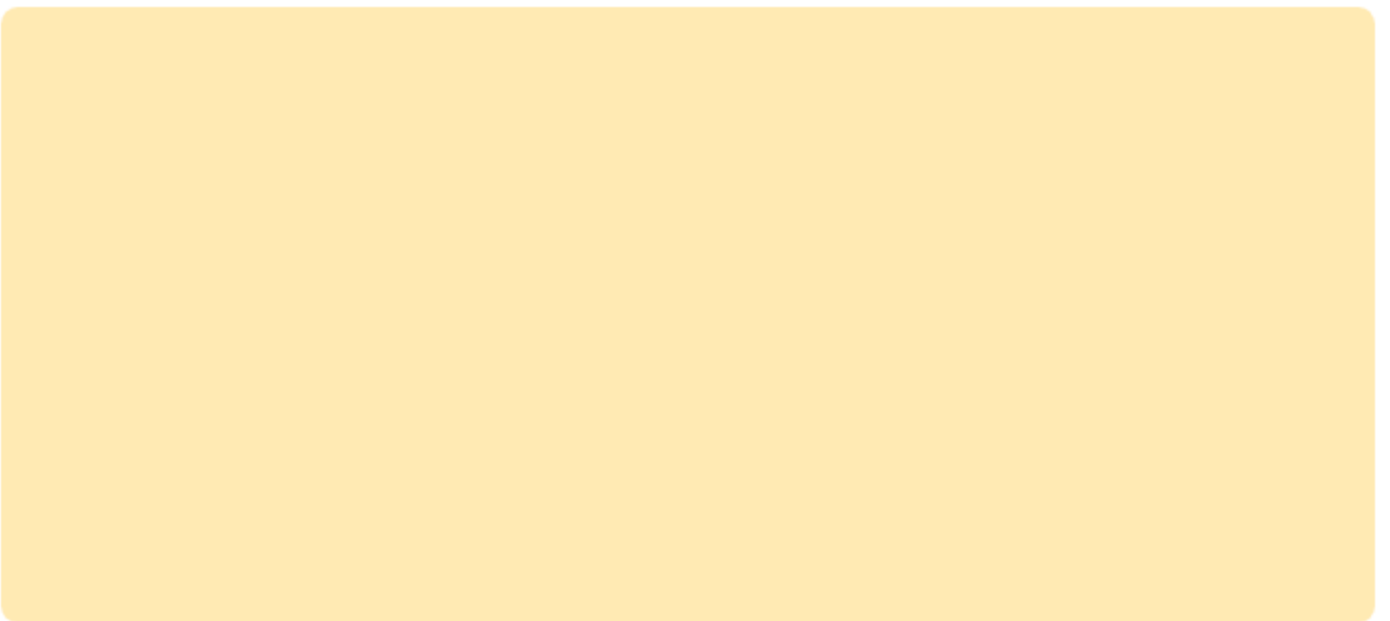
나는 힘들 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Blank area for writing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 〈설교 노트〉



## 〈설교 노트〉



# 19

월요일

##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욘 11:1-20

새찬송가 284장

- 1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 2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 3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 4 네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 5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 6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 7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 8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 9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 10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 11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 12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 13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 14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 15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 16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 17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 18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 19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 20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말씀 암송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엡1:7)



본문이해

## 본문설명

11장은 소발의 제 일차 변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발의 변론은 인습적인 교리를 앞세우며 보다 노골적으로 욱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욱이 말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가 비록 자신의 정결함과 순전함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결코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4절)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여 그의 죄악을 깨달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소발의 모습은 욱의 말을 곡해하고 비난하는 위로자로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소발은 욱의 마음에 전혀 귀를 기울이며 공감하지 않으며 비난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발의 모습을 경계하며 사람들의 말에 진심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적용질문



나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시도조차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Blank space for writing an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 20

화요일

##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욘 12:1-12

새찬송가 496장

- 1 욘이 대답하여 이르되
- 2 너희만 참으로 백성으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해도 죽겠구나
- 3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 4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 5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 6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 7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 8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 9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와 그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 10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 11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 12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 1-6절 욥의 비방

욥은 자신의 결백과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을 재확인함으로써 소발의 비난을 반박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이유가 그들이 고난을 겪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5-6절).

## 7-12절 욥의 조롱

욥은 여기서 소발의 폄하 발언(11:7-12)에 비꼬는 투로 응답합니다. 앞서 소발은 우주는 우리에게 너무나 불가사의하며, 지혜에 관한 한 인간은 '들나귀 새끼'(11:12)와 같아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욥은 이 주장을 소발에게 적용시켜, 지혜에 관한 한 인간(소발)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응수합니다. 비유하자면 욥은 적의 칼을 쥐고 싸우는 셈입니다.



**Q**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가고 있습니까?

# 21

수요일

## 그가 혈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욥 12:13-25

새찬송가 284장

- 13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 14 그가 혈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 15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 16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 17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 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 18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 19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 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 20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 21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 22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 23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 24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 25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말씀 암송**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욥기12:13)





### 13-25절 욥의 경외감

욥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낳은 지혜의 소유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선악을 막론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지혜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지도, 이해가 불가능할 만큼 모순되지도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저자의 신학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대화의 발전 단계상 아직은 이릅니다. 저자의 신학이 욥의 논지를 따라가고 있다고 본다면, 대화 진행 중에 나오는 그릇된 주장과 그릇된 반론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욥은 소발의 공격에 반응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하고 주권적인 방식들을 인정하는 반면, 그의 친구들을 비판하고 법정에서 하나님께 제시하기 위한 그의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신뢰하며 믿고 있습니까? 기록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과의 간극을 살펴봅시다.

# 22

목요일

##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욘 13:1-19

새찬송가 365장

- 1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 2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 3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 4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 없는 의원이니라
- 5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 6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 보라
- 7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 8 너희가 하나님의 낫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 9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 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 10 만일 너희가 몰래 낫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 11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 12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 13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 14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 15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 16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 17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 줄 것이 있느니라
- 18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 19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말씀 암송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욘13:16)



## 1-12절 욥의 변호

욥은 자신의 지식이 결코 친구들보다 못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변호하지만, 친구들은 그 반대를 주장합니다(1-2절). 3절은 욥이 친구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받고 싶다고 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변론'한다고 비난합니다(8절). 하나님은 이후 욥에게 친히 말씀하실 때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40:8)며 욥을 책망하셨습니다.

## 13-19절 욥의 선언

여기서 욥의 어조가 바뀌고 그의 논지도 중요한 변화를 맞습니다. 그가 자신의 정당성이 입증될 것임을 굳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18절). 욥은 아내와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과 관련해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 있지만(16b절), 그는 자신의 결백을 확신하며 적대적인 입장에서 신뢰하는 입장으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15절). 이제부터 욥의 발언에는 신뢰의 어조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적인 신뢰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에 더 집중해야 할 때와 장소가 어디인지 생각해봅시다.

# 23

금요일

##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욘 13:20-28

새찬송가 546장

20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21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22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23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24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25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불을 뒤쫓으시나이까

26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27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까

28 나는 썩은 물건의 낱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말씀 암송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욘13:22)



## 20-28절 욱의 바람

욱은 감정과 언어상의 변화를 잘 드러내면서, 친구들로부터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립니다.

'허물 혹은 죄'(23, 26절)

허물 혹은 죄(히, 아원. awon)는 부패한, 뒤틀린, 구부러진, 혹은 비뚤어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허물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모든 죄는 자신을 더럽히고 부패하게 하며, 인격을 왜곡시키고 순수성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죄를 지을수록 그의 영혼은 뒤틀리고 왜곡된 존재가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는 부정하고 더러워졌습니다. 시51편2절 '나의 죄악을 말갈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시편51편10절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죄가 자신을 더럽히고 왜곡시켰기 때문에 자신이 더럽다고 느꼈습니다.



환경과 상황,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한 나의 방법을 찾아봅시다.

# 24

토요일

##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장정이라도

욘 14:1-22

새찬송가 293장

- 1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 2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 3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 4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 5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 6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 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 7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 8 그 부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 9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 10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 11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 같이
- 12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 13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 14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 15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 16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 17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 18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 19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 20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 21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 22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말씀 암송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욘14:13)



## 인생의 허무함

몹은 인간의 삶이 짧고 유한하여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생이 한없이 허무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소망을 가지고 견디겠다는 의지를 가지지만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공존하는 몹의 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Q**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 25

주일

##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욘 15:1-16

새찬송가 387장

- 1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 2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 3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 4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 5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 6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 7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 8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 9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나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나
- 10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 11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 12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 13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 14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 15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 16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말씀 암송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욘15:16)





## 엘리바스의 변론

데만 사람 엘리바스는 옴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말이 교만과 불경건함을 주장하는 말이라며 정죄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 모두가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옴과 친구들의 비슷한 변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는 폭이 좁고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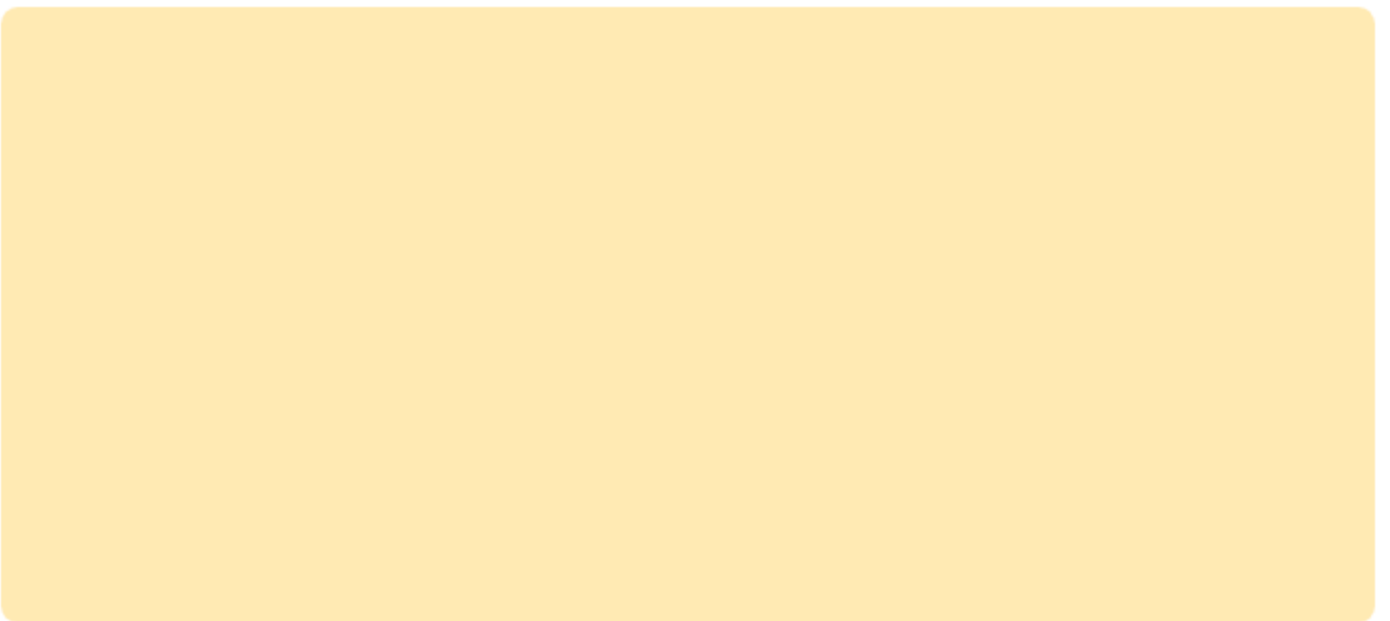


**Q**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 〈설교 노트〉



## 〈설교 노트〉



# 26

월요일

##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려 가리라

욘 15:17-35

새찬송가 289장

- 17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18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 하였느니라  
19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20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헛수는 정해졌으므로  
21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22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23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24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25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 음이니라  
26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27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28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 이니라  
29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30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 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31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32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 니  
33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 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34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 탈 것이라  
35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말씀 암송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욘15:18)



## 엘리바스의 전승된 지혜 인용

엘리바스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를 지혜자들의 전해져오는 말들을 인용하여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비참한 삶과 심판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비극적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허황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옳의 고통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규정하고 정죄하는 모습은 옳지 못합니다. 행여나 그 사람이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Q** 엘리바스와 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상처를 준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 27

화요일

## 주께서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욥 16:1-22

새찬송가 540장

-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 2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 3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 4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 5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 6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 7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 8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에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 9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 10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뱀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 11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 12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숩뜨리시며 나를 세워 과녁을 삼으시고
- 13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 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 14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 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 15 내가 굵은 베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 16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 17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 18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쉼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 19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증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 20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 21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 22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말씀 암송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욥 16:5)



##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의 원망

욥은 자신의 고통을 공감하고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신랄하게 자신의 비난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이 친구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참 위로자가 되었을 것이라며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없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우리에게 욥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같이 주변에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먼저 참 위로자가 되어야합니다.



**Q** 나는 주위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참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 28

수요일

##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욘 17:1-16

새찬송가 360장

- 1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 2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 3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 4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 5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 6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 7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 8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 9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 10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 11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 12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 13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퍼놓으매
- 14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 15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 16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말씀 암송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약 1:12)





## 환경을 초월한 신실한 신앙

욥은 비록 자신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멸시를 받고 그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함으로 육신은 점점 쇠하여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신도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욥은 비록 자신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의 길로 갈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우리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신실한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 29

목요일

## 악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욘 18:1-21

새찬송가 486장

- 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 2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 3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 4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 5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 6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 7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껌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 8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라미에 걸려들며
- 9 그의 발 뒤꿈치는 덧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 10 그를 잡을 덧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 11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 12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 13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 14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뿔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 15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향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 16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 17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 18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 19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 20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 21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말씀 암송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후 4:6)



##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악인의 멸망

본문에서는 '빛'과 '불꽃'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같은 표현은 악인들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부귀영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꺼지고 빛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악인이 당할 심판과 그로 인한 비참한 운명을 상징합니다. 빌닷은 악인은 잠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하고 만다는 도식적 인과응보론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응보에 근거한 하나님의 공의 실현은 현실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악인이 불의한 재물로 치부하고 심지어 죽을 때조차 고통 없이 평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빌닷의 주장의 문제점은 종말론적 공의 실현 원칙을 현세적, 보편적 원칙으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빌닷은 이처럼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옹호 받아들이기를 강요하였지만 옹호로서는 자신과 전혀 무관한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결코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빌닷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 30

금요일

##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욥 19:1-29

새찬송가 290장

-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 2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 3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 4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 5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 6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 7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 8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 9 나의 영광을 거두어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 10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 11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 같이 보시는구나
- 12 그 군대가 일제히 나아와서 길을 돈우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 13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 14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 15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 16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 17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 18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 19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 20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 21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 22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 23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 24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 25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 26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 27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 28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 29 너희는 칼을 두려워 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말씀 암송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히 10:30)



## 하나님께 맡겨야 할 원수 갚는 일

25절에서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고백합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말로 사용된 원어는 증인이 자신의 주장을 말하기 위해 법정에서 쓰는 것을 나타내는 법정 용어입니다. 즉 욥 자신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진실성을 반드시 변호해 주실 것임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심판자이시며, 그의 백성을 위한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관한 모든 판단과 보응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항상 모든 일의 판단자이시며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Q**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 한 적이 있습니까?

# 31

토요일

##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욥 20:1-11

새찬송가 580장

- 1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 2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 3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 4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 5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 6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 7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 8 그는 꿈 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 9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 10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 11 그의 기골이 청년 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흠에 누우리라

말씀 암송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말 4:1)



##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고 말하면서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달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은 잠시 번성할 수는 있지만 필연적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악인이기에 갑자기 재앙을 당하여 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악인으로 단정한 것은 분명 그릇된 것이지만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록 욥의 친구들이 진리를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하였지만 악인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진리입니다.



반드시 멸망할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원주중부교회 새벽 QT

## 매일 만나

2022. 12

**발행인** | 김미열

**도운이** | 조문상 최청환

| 한성훈 안광모

| 이상호 박예일

| 김요한 송주원

| 손아론

**발행처** | 원주중부교회

T : 033-744-2760 ~1,2

F : 033-744-2763

<http://wjjungbu.org>



